

중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

—개신교 성경 번역본을 중심으로—

黃持淵**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중국에서의 성경 번역 연구
3. 시기별로 본 개신교 성경 번역
 - 3.1 문언문체 (深文理譯本)
 - 3.2 쉬운 형식의 문언문체 (淺文理譯本)
 - 3.3 백화문체 (官話和合本)
 - 3.4 현대중국어문체 (現代中文譯本)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635년으로 당나라 太宗 때의 일이다. 경교의 창설자인 네스토리우스가 431년에 로마 교회에 의해 이단자로 추방되기는 했지만, 이후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인 啊羅本(Rabban Oloen)이 경전을 가지고 수도 시안(西安)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¹⁾ 당시에 이를 경교(景敎)라고 불렀다. 약 10년 후 페르시아인 景淨이 중국 문인의 도움으로 경교 경전인 <尊經>을 시리아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景淨의 번역은 음역과

* 본 논문은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1) 이환진, <중국어성서번역사>, 《성서와 함께》 1989년 제17집 1호.

의역을 함께 섞어 번역했으며, 문구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²⁾ 1623년경에 <大秦景教中國流行碑> 비문이 출토되었다. 이는 781년 당나라 덕종때 세운 것으로, 경교의 중국 유입과 흥망 그리고 尊經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문에는 인간의 타락과 미사야에 대한 내용이 있다.³⁾ 1907년에는 둔황(敦煌)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경교 경전이 35부로 되어있고 景淨이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尊經原跋>이 발굴되었다. 경교의 경전번역은 본문을 직접적으로 번역했다기보다 성경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⁴⁾

원나라 때 기독교는 흥성하지 않아서 성경의 중국어 번역에 별다른 사료를 남기지 않았다.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친 성경 번역은 주로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 행해졌다. 선교사들이 입으로 口譯하거나 초벌 번역을 하면 중국 문인들이 그것을 받아쓰거나 윤문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천주교의 성경 번역은 대부분 부분적인 번역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청나라 초에 프랑스인 馮秉正(Joseph-Francois-Marie-Anne de Moyriac de Mailla) 신부 등이 번역하여 1733년 출판한 <盛世芻蕘>에 이르러 대략적인 의미 전달에서 좀 더 통속적이고 매끄러운 번역으로 바뀌었다.⁵⁾

명청 시기의 예수회 선교사는 성경 번역보다 각종 교리에 관한 서적을 대량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巴設譯本>은 1738년 파리 외방선교회의 巴設(J. Basset) 선교사가 라틴어 성경을 대본으로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및 히브리서 제 1장을 번역한 번역본이다.⁶⁾ 이 번역본은 발췌나 부분만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문 그 자체를 번역했다는 점과 현존하는 최초의 천주교 성경 번역본이라는 점, 그리고 나중에 모리슨이 중국으로 올 때 이것을 필사해 와서 성경 번역에 참고하여 초기 개신교 성경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

2) 馬祖毅, 《中國翻譯簡史》(북경: 中國對外出版翻譯公司, 2001), 143쪽.

3) 劉俊, <聖經翻譯史>, 《吉林省教育學院學報》2008년 제10기 24권.

4) 李順春, <聖經在中國的翻譯和傳播>, 《江蘇技術師範學院學報》2004년 제3기 10권.

5) 蔣驍華, <聖經漢譯及其對漢語的影響>, 《外語教學與研究》2003년 제4기 35권.

6) Strandaeas, Thor,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As Expressed in Five Selecte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by the Mt. 5:1-12 and Col 1.* (Sweden: Graphic System A. B, 1987), 24쪽.

미가 있다.⁷⁾

이후 예수회 선교사인 賀清泰(Louis Poirot)는 1770년 중국에 와서 선교하였다. 그는 중국어와 몽고어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라틴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전문가의 주석을 참고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심을 기록한 책이므로 텍스트에 부합해야지 마음대로 첨삭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賀清泰譯本>은 馮秉正의 번역본에 비해 더 어렵고 애매한 내용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번역본의 이해를 돕고자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아주었다. <賀清泰譯本>은 신약은 모두 번역되었으나 구약의 선지서(先知書)들은 대부분 번역되지 않았다.⁸⁾ 이 번역본은 <巴設譯本>에 이은 두 번째 현존하는 천주교의 중국어 성경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 이전의 중국어 성경 번역은 경교와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성경 번역을 시작한 개신교 역시 중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 담당하였는데 그들 대부분 번역자이자 중국어에 능통한 학자였다. 번역 과정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개신교 성경 번역본의 번역 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통시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2. 중국에서의 성경 번역 연구

중국에서 성경 번역 연구는 성경 번역의 역사, 성경의 번역자, 성경 번역에 관한 사료수집과 정리라는 3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성경 번역의 역사를 연구한 仁東升(2006)은 기원전 2세기부터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중국에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시기를 4단계로

7) 賈保羅, 《聖經漢譯論文集》(홍콩: 香港基督教輔僑出版社, 1965), 6쪽.

8) 任東升, <聖經中文譯本考>, 《解放軍外國語學報》 2006년 제1기 29권.

구분하였다.⁹⁾ 그에 따르면 635년에서 845년을 중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시기를 선교사가 구두로 전수한 것을 중국 문인이 기록한 시기로 보았고, 16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을 선교사가 주석 달고 중국 문인이 운문한 시기로, 19세기 말에서 1919년을 선교사와 중국학자가 함께 번역한 시기, 1930년에서 현재까지를 중국 번역가가 독립적으로 번역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李順春(2004)은 성경이 중국에 전파된 유래를 살피고, 성경의 보급시기를 아편전쟁 이전과 이후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시기 별로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¹⁰⁾ 朱樹颺(1998)은 신중국 건립 이후 1970년대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주로 <官話和合本>과 <現代中文譯本> 두 가지를 비교하였다.¹¹⁾

성경 번역자에 대한 연구로는 성경 번역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인 마쉬만과 모리슨의 번역과정에서 취한 태도에 대한 세밀한 고찰과,¹²⁾ 마쉬만과 모리슨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의 원칙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¹³⁾ Strandenaes (1987)은 모리슨의 성경 번역원칙에 대해 충실성과 명료성 표준화된 기준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¹⁴⁾ 劉俊(2008)은 성경 번역자로서의 서양 선교사와 중국인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¹⁵⁾ 중국에서의 성경 번역은 문학화의 경향을 띠며, 1908년 嚴復가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을 계기로 중국인 번역가가 직접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다고 여기는 학자들이 많다.¹⁶⁾ 李熾昇

9) 任東升, <聖經漢譯研究: 述評與展望>, 《上海翻譯》2006년 제3기.

10) 李順春, <聖經在中國的翻譯和傳播>, 《江蘇技術師範學院學報》2004년 제3기 10권.

11) 朱樹颺, <談聖經翻譯>, 《外語研究》1998년 제3기.

12) 譚樹林, <聖經二馬譯本關係辨析>, 《世界宗教研究》2000년 제1기.

13) 譚樹林, <近代中文聖經翻譯史上的“二馬譯本”>, 《烟台師範學院學報》2003년 제4기 20권.

14) Strandenaes, Thor,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As Expressed in Five Selecte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by the Mt. 5:1-12 and Col 1*. (Sweden: Graphic System A. B, 1987), 44쪽.

15) 劉俊, <聖經翻譯史>, 《吉林省教育學院學報》2008년 제10기 24권.

16) 劉麗霞, <官話和合聖經的成功翻譯及其對中國新文學的影響>,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5년 제3기.

蔣驍華, <聖經漢譯及其對漢語的影響>, 《外語教學與研究》2003년 제4기 35권.

Barnstone, Willes, *The Poetics of Translation: History, Theory, Practic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93), 186쪽.

(2000)은 嚴復가 과거의 옛 글자와 문장법칙을 사용하여 신약성경에서 마가 복음을 번역하였다고 하였다.¹⁷⁾

성경의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방면에서 일부 선행연구를 보면 <바셋역본>이 <모리슨역본>의 참고 대본으로 사용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¹⁸⁾ Standenaes (1987)는 성경 번역본을 중심으로 연구한 학자이다. <바셋역본>이 히브리어 및 헬라어의 원어성경, 표준원문, 영어흠정역과 함께 <모리슨역본>의 참고 대본이 되었다고 여겼다.¹⁹⁾ 蔣驍華(2003)은 초기 성경이 유입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성경 번역본에 대해 고찰하였다.²⁰⁾ 劉麗霞(2005)의 경우 <官話和合本>이 중국 신문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官話和合本>이 당시 중국의 백화운동에 주요한 텍스트가 됐다고 했다.²¹⁾ 성경 번역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였던 嚴復, 林紓, 魯迅 등 중국 문인을 소개하고 성경텍스트가 5·4 신문학 시기의 <官話和合本>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 연구도 있다.²²⁾

번역자로서 당대 저명한 언어학자인 Eugence Nida는 1971년부터 <現代中文譯本> 번역작업을 직접 주도하였다. 나이다는 '동태적 등가' 번역 이론을 주장한 학자이다. 그는 출발어 텍스트가 도착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착어 문화권의 독자들이 읽기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의미를 독자들에게 가능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번역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現代中文譯本>의 번역 과정에 적용하여 내용의 동등성이 문체의 동등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텍스트의

17) 李熾昇, 李天剛, <關於嚴復翻譯的馬可福音>, 《中華文史論叢》 2000년 제64기.

18) 趙維木, 《論經溯源：現代五代聖經翻譯史》(홍콩: 中國神學研究院, 1993)

中文聖經新譯會 譯, 《中文聖經翻譯小史》(홍콩: 中文聖經新譯會, 1987)

19) Strandenaes, Thor,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As Expressed in Five Selecte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by the Mt. 5:1-12 and Col 1.* (Sweden: Graphic System A. B, 1987), 46쪽.

20) 蔣驍華, <聖經漢譯及其對漢語的影響>, 《外語教學與研究》 2003년 제4기 35권.

21) 劉麗霞, <官話和合聖經的成功翻譯及其對中國新文學的影響>,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5년 제3기.

22) 謝世賢, <從中國近代翻譯文學看多元系統理論的局限性>, 《四川外語學院》 2002년 제4기 18권.

어휘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그 텍스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도착어 형태로 옮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²³⁾ 이러한 나이다의 주장에 대해 연구가 주관적이고,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학자가 있었다. 朱志瑜(2004)의 경우 성경이 여러 텍스트 유형이 합쳐진 텍스트로서 나이다가 여기는 것처럼 성경 번역의 특징을 번역의 보편적 법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²⁴⁾ 텍스트 유형에 따라 텍스트의 기능과 의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편적인 법칙의 번역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경 번역에 대한 연구는 해외와 비교할 때 정체된 편이다. 신학계와 학계의 견해가 달라 성경 번역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불경번역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성경 번역에 대한 연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편이다.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시학적인 면에서도 성경은 전통적인 중국적인 사고와 다른 점이 너무 많은데다가 중국 교회가 과거 정치적인 혼돈과 핍박에 휩싸였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븐 조하(Even-Zohar)의 시스템 이론의 각도에서 볼 때 성경 번역은 중국이라는 큰 시스템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제한된 학술적 분위기로 인해 성경 연구에 대한 편집과 심사가 까다로우며 연구 교류도 쉽지 않다. 유신론(有神論)과 유물사관(唯物史觀)의 갈등 및 신앙과 학술적 견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성경 연구는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 방법에서도 한계가 나타난다. 중국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성경 번역의 전통이 서로 달라서 인명 지명을 포함한 중요 용어에서 번역이 다르다. 성경 원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이어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고 학자 간에 학술적 교류도 부족해 연구가 분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3) Eugence Nida,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33쪽.

24) 朱志瑜, <類型與策略: 功能主義翻譯類型學>, 《中國翻譯》 2004년 제5기 3권.

25) 楊自儉, 《英漢語比較與翻譯》(상해: 上海外語出版社, 2000), 317쪽.

3. 시기별로 본 개신교 성경 번역

본 논문은 개신교 중국 성경의 번역본을 크게 문언문인 <深文理譯本>, 쉬운 문언문의 <淺文理譯本>, 백화문의 <官話和合譯本>, 현대적인 중국어인 <現代中文譯本>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 심문리(深文理), 천문리(淺文理), 관화(官話)은 초기 중국어 성경 번역을 담당했던 서양 선교사에 의한 분류로서 성경 번역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개신교 성경 번역을 시작한 시기는 1810년경으로 청나라 말기이다. 당시 중국은 문언문을 사용했던 시기로 글은 소수의 관료나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달을 추구한다 해도 문언문의 형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1890년 이후에 이르러 전환기를 맞았다.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들은 번역본을 심문리(深文理), 천문리(淺文理), 관화(官話)로 분류하여 번역하기로 하였다.²⁶⁾

深文理란 초기 성경 번역에서 사용되었던 문언문체를 말하는 것으로 현대문과 대비되는 古文, 구어체와 대비되는 문언문을 가리키는 용어로 채택되었다. 문언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통속적인 색채를 띤 문언으로 바뀌면서 고문과 백화문사이의 쉬운 문언문을 淺文理로 불렀다. 고문은 소수의 사람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독자가 성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은 너무 통속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이미 널리 보급된 백화문 형식으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독자층의 수요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官話란 표준어로 채택된 중국어로서 특히 북경어를 지칭하며 관리 사이에 사용되었던 말로서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된 백화문이었다. 1910년 이후 5·4 신문화운동을 계기로 백화는 더욱 확대 사용되었다.

26) 劉麗霞, <官話和合聖經的成功翻譯及其對中國新文學的影響>,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5년 제3기.

본 논문은 시기별 흐름에 따라 위의 분류를 중심으로 중국어 성경 번역의 과정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문언문으로 대표되는 <마쉬만역본>, <모리슨역본>, <사인조역본>, <대표역본>과 쉬운 문언문의 <淺文理譯本>, 백화문인 <官話和合譯本>, 현대 중국어의 <現代中文譯本>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1 문언문체(深文理譯本)

3.1.1 마쉬만역본 (馬士曼譯本)²⁷⁾

馬士曼(Joshua Marshmann)과 拉沙(Joannes Lassar) 두 사람이 함께 인도에서 번역한 번역본이다. 영국침례회의 인도 선교사인 마쉬만은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8세가 되기 전에 이미 5천 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시리아어에도 정통하였다.²⁸⁾ 성경 번역에 앞서 孔子의 저서를 번역한 <儒教著作選編>을 펴냄으로써 중국어에 대한 높은 소양을 보여주었다. 마쉬만과 함께 중국어 성경 번역 작업을 한 사람은 라싸였다. 그는 아르메니아사람으로 마카오에서 태어났으며 포르투갈과 청나라 정부의 통역관으로 활동하다가 인도로 이사한 뒤 마쉬만을 만나 성경 번역에 협력하였다.²⁹⁾

1810년 마태복음부터 번역하여 1816년에 <신약전서>를 출판하였고 <신구약 합본>은 1822년 인도에서 출판되었다.³⁰⁾ 번역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영어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매번 한 단락을 완성할 때 마다 헬라

27) 외국인명은 우선 한자와 영어를 함께 표기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음으로 표기, 중국인명은 한자만 표기.

28) 李志剛, 《基督教早期在華傳教史》(대만: 臺灣生物印書館, 1985), 177쪽.

29) Broomhall Marshall, *The Bible in China* (San Francisco: Reprinted by Chinese Meterail Center Inc. 1997), 51쪽.

30) 譚樹林, <近代中文聖經翻譯史上的“二馬譯本”>, 《烟台師範學院學報》2003년 제4기 20권.

어 원문에 의거하여 구절마다 교정하였다. 교열을 마친 뒤 다시 영어를 모르는 중국인이 교정한 후 인쇄하였다. 영국침례교회의 인도 세람포지부가 1808년에 펴낸 <聖經翻譯備忘錄>에 따르면, 마쉬만과 라싸가 강희자전(康熙字典)을 포함한 300여 권의 사전과 중국어로 된 참고서를 이용해 번역작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번역과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는 마쉬만이 1813년 2월 영국성공회에 보낸 편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번역 전에 라싸는 매일 정해놓은 부분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라싸가 읽고 난 뒤 번역을 한 단락 마치면 저는 헬라이어로 된 Griesback <신약전서>를 손에 들고 한 절(節)씩 수정해나갔지요. 모든 절을 읽었고, 적합하지 않다 여기면 다른 글자로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한 장(章)의 번역이 끝나면 번역문을 라싸에게 주고 성경을 영어로 친척히 또박또박 읽어주면서 라싸가 영어를 듣고 자기의 중국어 번역문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남으면 두 번, 세 번씩 감수한 뒤 원고를 인쇄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양면 중 한 페이지를 연판(鉛版)의 활자로 채운 후 영어를 모르는 중국인과 함께 읽어보고 의미가 잘 통하도록 수정하고 교료지(校了紙) 몇 부를 찍어 몇몇 사람에게 읽어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혼자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토론하며 헬라이 원문과 대조하며 읽어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가장 엄격한 검사를 한 셈이지요. 이 때 의미가 충분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면 ‘라틴어한문자전(拉丁漢文字典)’를 이용해 하나씩 확인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다음, 다시 헬라이 원문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절 단위로 읽었다면 이번에는 소단락을 읽고 중국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옆에 표시해두고 라싸와 중국인과 이야기해보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갔어요. 이 단계가 끝나면 다시 교료지를 인쇄해 저보다 중국어 단어를 잘 하는 제 아들에게 읽어보게 했지요. 아들이 좋다고 하면 교료지를 또다시 인쇄해 중국인과 라싸에게 주어 각각 읽게 하고 이상한 부분을 지적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번역문과 원문을 비교해보면서 그들이 미처 찾지 못한 실수는 없는지 확인하였어요. 이 작업이 끝나면 또 교료지를 중국인에게 주어 중국어 의미에 맞춰 문장 부호를 추가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꼭 저의 확인을 거쳤는데 그와 제 의견이 일치하면 그 때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인쇄 전 마지막으로 교료지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정식으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³¹⁾

31) 賈立言, 馮雪冰 옮김, 《漢文聖經翻譯小史》(상해: 廣學會, 1934), 21-24쪽.

실로 마쉬만이 중국어 성경 번역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충실성에 번역 원칙을 두고 진지하고 세심하게 번역에 임했다.³²⁾ 하지만 문자 번역에 너무 치중하였고 번역자의 중국어 어휘량이 부족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쉬만과 라씨의 번역본은 마쉬만의 이름을 따서 <마쉬만역본>이라고 한다. 최초의 개신교 중국어 성경으로서 큰 의미를 가졌으나 번역과 출판이 인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그 영향이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3.1.2 모리슨역본 (馬禮遜譯本)

馬禮遜(Lobert Morrison)과 米憐(William Milne)은 모두 스코틀랜드인으로 런던선교회 소속의 선교사였다. 모리슨은 1805년 당시 런던에서 중국인 容三德에게 중국어를 배웠다. 1807년 중국 광저우에 도착하자마자 성경 번역에 착수하였다. 모리슨은 중국으로 오기 전에 대영박물관에 있는 <바셋역본>을 베껴가지고 왔으며 이것을 기초로 1810년 헬라어로 씌여진 <바셋역본>에 근거해 1813년 신약성경을 전부 번역하였고 1814년 광저우에서 출판하였다. 또 한 명의 선교사 밀른은 1813년 마카오로 와서 모리슨과 함께 동역하다가 후에 말라카에서 번역을 도왔다.³³⁾ 두 사람이 함께 번역한 구약성경은 1819년에 완성되었고 신구약합본은 1823년 <神天聖書>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신약성경의 출판은 <마쉬만역본>보다 앞서 있었다. 모리슨은 번역시 히브리어 및 헬라어의 원어성경 외에 <바셋역본>과 헬라어 표준원문(Textus Receptus)과 영어흠정역(King James Version)을 참고하였다.³⁴⁾ 특히 신약 번역 때에는 라틴어를 대본으로 한 <바셋역본>을 참고하였다.

모리슨의 번역원칙은 바로 충실성(忠實), 명료성(明達), 소박성(質朴)이었

32) 李志剛, 《基督教早期在華傳教史》(대만: 臺灣生物印書館, 1985), 190쪽.

33) 湯清, 《中國基督教百年史》(홍콩: 道聲出版社, 1987), 93-94쪽.

34) Strandenaes, Thor,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As Expressed in Five Selecte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by the Mt. 5:1-12 and Col 1.* (Sweden: Graphic System A. B, 1987), 46쪽.

다. 그는 번역과정에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고, 번역문이 중국어 문법에 부합하여 중국어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³⁵⁾ 번역문의 문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였다. 모리슨은 성경을 ‘四書’나 ‘五經’같은 고문으로 번역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중세 유럽 지식인들은 존경 받을만한 서적은 라틴어로 쓰여져야 한다고 여겼다. 중국의 지식인들 역시 고문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송나라 유학자 ‘주희(朱熹)’는 고문은 과도하게 짧고 넓은 관념만 나타내므로 새로운 관념을 전할 때는 백화문언문(濼白文字)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만약 고문의 문체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난해한 문구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기꺼이 고문을 버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썼다. 이교도적인 교리와 경전의 언어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저속하고 고상하지 못하다고 여겨질지언정 어렵게 여겨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힘든 단락은 할 수 있는 한 품위있고, 충실하고, 이상하지 않은 단어로 바뀌어 쉽게 번역하였다.”³⁶⁾

모리슨은 하나님이나 예수그리스도와 같은 주요 용어의 번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는데, <바셋역본>에 따라 ‘하나님’을 ‘神’으로 번역하였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도다’에서 <바셋역본>은 ‘蓋神愛世人賜己獨子，使凡信之者，不隕，乃得常生也’로 <모리슨역본>은 ‘蓋神愛世，致賜己獨子，使凡信之者不敢沉亡，乃得永常生也’로 ‘하나님’이 ‘神’으로 동일하게 번역되었다. 반면 ‘예수그리스도’의 경우는 좀 달랐다. 로마서 제1장 1절 ‘예수그리스도의 종(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신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가 <바셋역본>은 ‘耶穌基督之仆，蒙神召爲使徒，蒙擇事神로，<모리슨역본>은 ‘耶穌基利斯督之仆保羅，被召爲使徒，分派事神之福印’으로 다르다. <바셋역본>은 ‘耶穌基督’인데 <모리슨역본>에서는 ‘耶穌基利斯督’로 번역되었다.³⁷⁾

모리슨이 <바셋역본>을 따라 ‘하나님’을 ‘神’으로 번역하였으나, 이에 그치

35) 譚樹林, <論馬禮遜聖經漢譯及其影響>, 《山東師大學報》2000년 제5기.

36) 簡又文, 《傳教偉人馬禮遜》(홍콩: 基督教輔僑出版社, 1956), 96쪽.

37) 李志剛, 《基督教早期在華傳教史》(대만: 臺灣生物印書館, 1985), 47-48쪽.

지 않고 중국어 습관에 맞게 문장부호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모리슨역본>이 <바셋역본>에 비해 문장 구두 면에서 중국어 습관에 더 부합하게 되었다. 모리슨은 중국인의 언어습관에 더욱 근접하기 위해 중국학자를 초청해 수정과 윤문을 거쳤다. 번역의 협력자인 중국인 梁發는 인쇄공이었을 뿐 아니라 중국어 번역본에 윤문을 한 사람이었다. 모리슨의 중국어 선생이었던 師高도 번역본의 교정 작업에서 문법 수정을 하였다.³⁸⁾ 모리슨은 기독교 교리 표현에 적합한 중국어 어휘를 배우기 위해 중국어로 쓰인 기독교 서적을 대량 읽었다.³⁹⁾ <모리슨역본>은 <마쉬만역본>에 비해 중국인의 도움을 받았기에 번역문이 비교적 뛰어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하지만 <모리슨역본>은 원문 텍스트 순서에 얽매어 글자 순서에 따라 번역하였고, 문자적인 접근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대명사나 부사와 같은 허사를 너무 많이 사용하였으며 문언문의 정제된 문체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⁴⁰⁾ 그럼에도 이후의 중국 성경 번역에 기초가 되었으며 한국의 초기 성경 번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⁴¹⁾

3. 1. 3 사인조역본 (四人小組譯本)

1835년 모리슨의 아들 馬儒漢(J. M. Morrison)과 麥都思(W. H. Medhurst) 선교사는 다시 한 번 성경을 번역하고자 제 2의 중국선교를 위한 성경 번역 계획을 영국성경공회에 건의하고 착수하였다. 독일 선교사 郭士立(C. Gützlaff)와 미국 선교사 裨治文(E. C. Bridgeman)도 이 계획에 함께 참여하여 4명이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들이 번역한 성경을 <사인조역본>이라고 부른다. <모리슨역본>에 의거하여 수정한 <사인조역본>은 <모리슨

38) 劉俊, <聖經翻譯史>,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08년 제10기 24권.

39) Austin Coates, *Macao and the British 1637-1842*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89), 111쪽.

40) 劉四發, <馬禮遜聖經漢譯文語言評析>, 《學理論》 2011년 제17기.

41) 한미경, 《초기 한국성서와 중국성서의 서지학적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24쪽.

역본>의 개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좀 더 중국적인 문법과 수사와 토착화를 추구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순조롭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⁴²⁾

신약성경은 1835년에 완성하였고 1836년 매드허스트의 수정을 거쳐 1837년 <新遺詔書>라는 명칭으로 출판되었다. 구약성경은 귀츨라프가 대부분 번역하였는데 1838년 번역을 완성하여 1840년에 <舊遺詔書>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1853년 洪秀全이 기독교의 기치를 들고 태평천국의 수도를 난징으로 정해 통치했을 때 바로 이 귀츨라프 번역본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번역본을 따라 신약과 구약을 통칭하여 <遺詔>로 불렀고 뒤에 <聖書>를 붙여 <遺詔聖書>라 명명하였다. 하지만 이 번역본에 근거해 출판한 태평천국의 성경은 삭제된 내용이 많았다.⁴³⁾

3.1.4 대표역본(代表譯本)

아편전쟁 이후 남경조약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843년 미국과 영국의 선교기관들은 홍콩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함께 열었다. 이곳에서 번역위원회(委辦課本委員會)를 설립하여 이전 번역본보다 더 완전하게 성경을 번역하여 통일적인 명칭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헬라이어 표준원문을 대본으로 하고 각 단체의 선교사 대표가 분담하여 번역하고 감수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대표역본>으로 부르고 있다.

<대표역본>은 1850년에 번역을 완성하고 1852년 신약성경을 <新約全書>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하지만 구약성경 번역과정에서 위원회가 분열되었다. 구약성경 번역을 위해 1849년 집회하여 다시 각지 대표로 연합 조성한 하나의 대표위원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851년 런던선교회의 대표

42) 李志剛, 《基督教在中國本色化》(북경: 今日中國出版社, 1998), 169쪽.

43) 蔡錦圖, <中文聖經翻譯的歷史回顧和研究>, 《聖經文學研究》 2011년 제5기.

인 麥都思(W. H. Medhurst), 施敦力(Stronach) 등이 탈퇴를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번역에 참가한 대표위원회 구성 팀들이 주축이었다는 이유로 <대표역본>이라 명명하였다. 한국 초기성경의 주요 참고대본으로 <모리슨역본>과 함께 언급되는 번역본이기도 하다.⁴⁴⁾

<대표역본>의 번역과정을 살펴보면, 성경을 중역하였을 뿐 아니라 명칭과 용어를 이전보다 통일시켰다. 획기적인 번역 작업이었으나 번역과정에서 각 대표끼리 신학적 입장차이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번역과정에서 대표 간에 'God' 용어의 번역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결국 미화성경회(美華聖經會)는 '神'이라는 어휘를 채용하고, 대영성경공회(大英聖書公會)에서는 '上帝'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출판하였다.⁴⁵⁾ 현재 중국 성경을 접할 때 '神版'과 '上帝版'으로 구분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시발되었다.

<대표역본>의 시기에 중국번역가가 정식으로 성경 번역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는데 王蹈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번역 과정에서 도운 부분은 주로 문자적인 작업이었다. 그는 번역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완성되기 전 마지막 윌문 작업을 하였고 <사인조역본>이나 <모리슨역본>과 대조하면서 문장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번역텍스트 내용을 종합하는 작업은 매드허스트에 의해 이루어졌고, 번역텍스트의 문체를 통일시킨다거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듬는 작업은 王蹈가 담당하였다. 특히 서양사상과 중국의 전통사상과 견해를 대조하고 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동서양이 추구하는 진리는 결국 하나인데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여겼다.⁴⁶⁾ <대표역본>은 당시 여러 해 동안 통용되었으며 중국 각 지방의 <방언역본>에 영향을 끼쳤다.

44) 한미경, 《초기 한국성서와 중국성서의 서지학적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27쪽.

45) Broomhall Marshall, *The Bible in China* (San Francisco: Reprinted by Chinese Meterail Center Inc. 1997), 70쪽.

46) 劉俊, <聖經翻譯史>,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08년 제10기 24권.

3.2 쉬운 형식의 문언문체 (淺文理譯本)

19세기 중엽이 지나자 성경의 중국어 번역본은 점차 淺文理와 官話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淺文理란 전통적인 문장구조이나 상대적으로 상용화된 어휘를 사용하는 문체로 고문과 백화문 사이에 있는 쉬운 문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 官話는 청나라 말기 조정이나 각지 관원들이 사용하던 언어이자 중국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고문은 소수의 사람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독자층을 위해 너무 통속적이지 않은 백화로 성경을 번역하여 독자층의 언어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淺文理 번역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미국 성공회 선교사인 施約瑟(Samuel I. J. Schereschewsky)이다. 그는 1881년 우한(武漢)에서 폭염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1898년 백화형식의 문언문체인 신약을 출판했고, 1902년에는 <신구약전서>를 출판하였다. 그는 번역본을 수정하여 官話 번역본과 통일시키고자 하였으나 백화형식의 문언문에 관주를 다는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조수가 번역 작업을 마쳐 1910년에 <二指版>이란 명칭으로 출판하였다.

麥都思(W. H. Medhurst), 施敦力(Stronach)는 대표위원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신약성경을 번역했던 당시의 번역원칙에 의하여 번역을 진행하여 1855년에 <聖經全書>를 출판하였다. 또 당시 한학자였던 몇몇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北京官話新約全書>를 내었다. 施約瑟(Samuel I. J. Schereschewsky)는 <北京官話新約全書> 근거로 <舊約譯本>를 냈다. 영국성공회는 <北京官話新約全書>와 <舊約譯本>를 근거로 <新舊約全書>를 출판하였다. 이밖에 영국선교사 楊格非(Griffith John)의 <楊格非官話譯本>와 예수회 선교사 蕭靜山の <新經全集>가 쉬운 문언체로 다시 쓰인 성경이다.⁴⁷⁾

선교사들은 중국의 지역 방언으로도 성경 번역 작업을 하였다. 관화(官話)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여러 <방언역본>들이 있

47) 任東升, <聖經中文譯者對翻譯理論的探討>, 《外語與外語教學》 2001년 제12기.

다. 선교사들은 지역 방언을 이용해 중국어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하였는데 대다수가 한자 음을 번역한 방식이다. 선교사들은 새롭게 만든 로마자모를 이용해 한자 음을 표기하였다. 상하이(上海), Ningbo(寧波), Suzhou(蘇州), Xiamen(廈門), Shantou(汕頭), Guangzhou(廣州), Fuzhou(福州), Wenzhou(溫州), Hangzhou(杭州), Kejia(客家), Tianjin(天津), Shandong(山東), Hainan(海南) 등지의 방언으로 번역된 <방언역본>이 나왔다. 선교사들은 또한 소수민족 언어로도 성경을 번역하였다. 가장 이른 번역은 만주어로의 번역으로 1822년에 출판되었다. 1860년에서 1900년 초까지 만주어, 몽골어, 조선어, 러시아어, 장족어 등 30여 종류의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왔다. 문자가 없는 중국 소수민족의 경우 라틴자모로 음표기를 해주어 출판을 도왔다.

3.3 백화문체 <官話和合本>

19세기 후반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 범위는 화북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그들은 관화(官話)가 화북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에 착안하여 백화문으로 된 성경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1890년 상하이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들은 번역위원회를 구성하여 <官話和合本>의 번역을 시작하였다. '和合'이란, 기독교의 각 종파가 성경 내 일부 핵심어의 정확한 번역법과 인명의 표준음역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의미한다.

신약은 1891년 狄考文(Calvin Wilson Mateer)의 책임 하에 번역을 시작해 1907년 출판되었다. 구약은 富善(Chauncey Goodrich)이 이끌다가 1919년 초에 이르러 신구약전서 통합본인 <官話和合本>을 출판하였다. 총 28년의 오랜 노력 끝에 완성되어 1919년에 정식으로 나온 <官話和合本>은 보통 <和合本>라 불리운다. <화합본>은 중국어 성경 번역에 중요한 성과로서 이전 번역본 보다 더 정확하고 독자들이 읽기 쉬운 번역본이다. 현재까지 중국 교회와 신도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 번역본으로 인식되고 있다.⁴⁸⁾

<화합본>은 번역 과정에서 백화문을 사용하여 원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렸다. 과거에는 성경 번역을 불교나 도교 혹은 유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예가 있었다. 당나라 시대의 경교(景教) 경전에서 ‘하나님(上帝)’을 ‘부처님(佛)’으로, ‘세례 받다(受洗)’를 ‘수계 받다(受戒)’로 번역하였고, 명말 청초 예수회의 리마竇(Matteo Ricci)는 유교적인 용어로 기독교의 교리를 풀었다. 하지만 유교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으로 번역했을 경우 성경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미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화합본>은 이러한 번역 방식에 반대하며 성경 원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릴 것을 강조했다.⁴⁹⁾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많아진 상황에서 당시의 독자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 필요했다. <화합본> 번역자는 원문 텍스트에 충실하자는 원칙으로 가지고 번역에 임했으나 번역 과정에서 도착어 텍스트의 의미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하여 번역위원회는 중국 전역에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할 것, 모든 계층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번역할 것, 원문에 충실하되 중국어의 압운이나 어투를 살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簡單(간결성), 清楚(명확성), 順暢(유창성), 具有文學品味(문학성)의 도착어 독자 중심의 번역 원칙을 세웠다.⁵⁰⁾

<화합본> 번역 작업을 주도했던 서양 선교사들은 백화문을 마스터한 인재들이었다. 신약 번역의 책임자인 狄考文(Calvin Mateer)은 미국 장로회의 선교사로 탄탄한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구약 번역의 책임자 富善(Chauncey Goodrich)도 미국 공리회 선교사로서 중국어에 조예가 깊었다. 그 밖에 성경 번역에 참여한 선교사들 역시 모두 성경 원문과 중국어에 모두 능통했다. 성경 번역 작업은 많은 선교사들이 28년의 세월을 거쳐 완료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어에 조예 깊은 선교사들이 있었다 해도 <화합본>을

48) 劉麗霞, <官話和合聖經的成功翻譯及其對中國新文學的影響>,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5년 제3기.

49) 許牧世, 《經典譯經》(홍콩: 基督教文藝出版社, 1983), 140쪽.

50) 趙維本, 《論經溯源: 現代五代聖經翻譯史》(홍콩: 中國神學研究院, 1993), 33쪽.

번역하면서 여전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당시에는 한어병음(漢語拼音)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전류라고는 강희자전(康熙字典)이나 오방원음(五方元音) 정도 밖에 없었고, 농사나 농기구와 관련된 용어는 일용농가잡자(日用農稼雜字) 같은 소책자를 뒤적여야 했다.⁵¹⁾

이 무렵 중국인 문인이나 학자들도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졌는데, 중국 번역계의 거두 嚴復의 경우 성경 번역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는 영국성경공회의 요청으로 마가복음 1-4장을 번역하였다. 외국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영어개역본을 보고 직접 번역하여 1908년에 출판하였다. 그는 특별히 성경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항상 강조해왔던 한나라 이전(漢以前) 문언문으로 번역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문인들이 성경 번역을 일종의 문학작품의 번역으로 여겨 번역 과정에서 풍부한 문학적 창작성을 추구했다는 점이다.⁵²⁾ 기독교 신자와 다른 입장으로 성경의 문학적 가치를 추구하여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 문인들은 문학 번역의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했고 詩歌의 경우 중국 전통 형식과 접목시켜 번역하곤 하였다. 許地山은 1920년대 <아가서(雅歌)>를 중역했다. 吳經熊은 오언절구와 칠언절구를 이용해 <시편(詩篇)>을 번역했다. 20년 간 히브리어를 연구했던 李榮芳은 소체(騷體)를 이용해 <예레미아 애가(哀歌)>를 번역하기도 했다.⁵³⁾

서양 선교사의 중국어 선생이거나 기록원이었던 중국인도 성경 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齊魯대학 교수이자 번역자인 王宣忱은 <화합본> 번역위원회의 의장이었던 狄考文(Calvin Mateer)의 조수였다. <화합본>이 많은 독자들에게 수용되도록 그의 탁월한 중국어 문장력은 큰 도움이 됐다. 나중에 王宣忱은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1930년부터 독자적으로 신약을 번역하기 시작하여 1933년 출판했다. 이것이 중국번역가가 번역한 첫 번째 신약전서이다.

51) 許牧世, 《經典譯經》(홍콩: 基督教文藝出版社, 1983), 40쪽.

52) 劉麗霞, <官話和合聖經的成功翻譯及其對中國新文學的影響>,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5년 제3기.

53) 任東升, <中國翻譯家與聖經翻譯>, 《四川外語學院學報》2002년 제4기.

서양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 과정에서 지킨 하나의 원칙은 중국어 사전과 같은 번역 도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원문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성경 번역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화합본>을 보면 번역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글자를 번역하는 것이 원작에 충실한 것이라고 여긴 결과 원문 형식에 과도하게 얽매이게 되었고 문화적 범주에 속하는 관용어조차 중국어로 직역하자 맥락이 통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읽기 쉬운 번역본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약을 번역하는 12년의 동안 신약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번역문은 더욱 정확하고 세련되게 바뀌었다. <화합본>이 문언문과 쉬운 문언문 번역본보다 널리 수용된 이유는 당시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관화(官話)로 번역되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백화문의 출현으로 과거 문언문의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투가 사라지고 성경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게 되었다.

오랜 번역 과정을 거치며 1919년 출판된 <화합본>은 성경 번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그 간 번역된 중국어 성경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1819년 모리슨의 중국어 성경 번역본 이래 백년 만에 성경을 정리하였다. 둘째, 백화문으로 번역한 성경 중 가장 정확하고 면밀한 번역본으로, 백화문을 반복해서 손보고 다듬는 시도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며 5·4 신문화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1919년은 마침 백화문으로 문학의 대중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시기였다. 당시 많은 문인들이 <화합본> 성경을 읽었으며, 신약의 <사복음서> 텍스트는 당시 정부와 학교의 표준 국어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⁵⁴⁾

3.4 현대 중국어문체 (現代中文譯本)

1920년 이전까지 중국어 성경의 번역을 주도한 것은 서양 선교사들이었다.

54) 李順春, <聖經在中國的翻譯和傳播>, 《江蘇技術師範學院學報》 2004년 제3기 10권.

그들은 성경 번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외국인에 의한 번역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중국적 맥락에서 전혀 접해보지 않은 성경 번역 텍스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和合本> 이후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 스스로 성경 번역의 임무를 맡으면서 학자와 문인들이 번역 작업을 점차 주도해갔고, 고고학의 발전과 학자들의 성경 원문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성경 번역본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朱寶惠와 賽兆祥이 1929년 함께 <新約全書>을 번역하였다. 王宣忱은 1933년 <新約全書>를 재번역하였다. 1946년 燕京大學이 呂振中の <新譯的新舊約全書>, 陸亨理과 鄭壽麟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詩篇과 신약을 <國語新舊庫譯本新約全書>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중국성경공회는 <新約全書>를 현대적인 구어로 출판하였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및 여러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한 예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의 <簡易聖經讀本>와 <新經全集>가 있고, 1960년 이후 思高聖經學會에서 원문에 근거해 번역한 <四高聖經譯本>(1968), 呂振中이 히브리어를 근거한 <呂振中譯本>(1970), <當代福音>(1979), <新約全書新譯本>(1976) <當代聖經>(1979), 현대영어 성경을 근거로 한 <現代中文譯本>(1979)가 있다. 1980년 이후는 화합본을 수정한 <新標点和合聖經>과 국제성경협회의 <新漢語譯本>가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한 <聖經新譯本>(1993) 등이 있다.⁵⁵⁾

그리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된 <現代中文譯本> 성경이 있다. 이는 당대 저명한 번역학자인 Eugence Nida가 미국성경공회의 요청으로 1971년부터 번역을 주도했던 번역본이다. 나이다는 언어학자였으나 일찍이 대학에서 라틴어 헬라어 및 고전학을 공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번역의 문제를 자주 접했고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46년 세계성경연합이 설립되자 나이다를 중심으로 전 세계 성경 번역자들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된다. 1971년부터 현대 중국어로의 성경 번역이 나이다가 주도하고 許牧世 교수가 집필하는 것으로

55) 劉俊, <聖經翻譯史>,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08년 제10기 24권.

시작되었고 9년 만인 1979년 말에 출판되었다.

나이다의 번역이론은 '동태적 등가'이다. 도착어 어휘 선택이 도착어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번역과정에서 의미의 동등성이 문체의 동등성보다 우선해야 하고 번역에서 출발어 텍스트의 어휘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그 텍스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도착어 형태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이란 출발어 텍스트에 가장 가깝고 자연스런 등가물을 도착어에서 재생산해내는 것이다. 출발어 텍스트의 형식보다 의미가, 출발어의 구조나 문화보다는 도착어의 구조와 문화를 더 중시해야 한다.⁵⁶⁾

나이다는 자신의 번역 이론을 <現代中文譯本>의 번역에 적용하여 성경 번역에 있어 성경 원문 텍스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의 보존과, 도착어를 타 언어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징을 존중하였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성경 원문 텍스트가 도착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착어 문화권의 독자들이 읽기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의미를 독자들에게 가능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성경 번역의 목표로 삼았다. 성경 번역은 다른 분야의 번역과 달리 기독교의 신앙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나이다는 신앙에 대한 경외심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성경 원문(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대한 번역자들의 맹목적인 경외심을 성경 번역의 어려움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원문 텍스트가 가지는 신학적인 토대에 대한 맹목적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성경 번역자들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선 각 언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문장과 문법의 순서가 다르고, 담화의 문법적 성경이나 기능이 언어마다 다르며, 시가(詩歌)나 잠언(箴言) 같이 특수한 담화 타입도 다르며, 각 언어별 인종적 특성이나 문화적 초점이 다르다. 둘째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번역자는 반드시 각 언어

56) Eugence Nida,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12쪽.

의 특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자는 도착어의 독특한 구조 형식을 파악하고 장점을 반영하여 출발어 메시지가 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언어는 어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텍스트 내용을 보존하더라도 출발어에서 사용한 언어의 형태를 고집하기보다 도착어 규범에 맞는 언어의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언어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그 형태가 메시지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한 다른 언어에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28장 3절에 ‘눈처럼 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평생 눈이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눈처럼 희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이다는 ‘눈’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희다’가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번역의 중점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⁷⁾

<現代中文譯本>은 <회합본> 이후에 나온 중국어 번역본을 정리하고 수정하여 현대 중국어의 언어 습관에 부합하는 번역을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번역 과정에서 의미 부합의 원칙을 지키고 형식적인 등가를 지양함으로써 어려운 문장이나 단락을 처리하는 데 있어 효과를 거두었다. 실생활이나 서적이거나 방송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였고, 방언이나 은어 및 소수 계층에서 사용하는 말은 배제하였다. 익숙한 새로운 문장부호와 대명사(他, 她, 它) 등을 사용해 독자가 성경 텍스트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역사·지리·풍습·문화적 배경의 차이 등을 고려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문을 융통성 있게 처리하였다.

4. 나가는 글

지금까지 본 논문은 중국 개신교 성경 번역 문제를 통시적인 각도에서 살펴

57) Eugene Nida,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3-5쪽.

보았다. 시기별로 번역본을 중심으로 문언문의 <深文理譯本>, 쉬운 문언문의 <淺文理譯本>, 백화문의 <官話和合本>과 현대 중국어의 <現代中文譯本>의 번역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초기의 중국어 성경 번역은 대략 1810년경부터 1920년까지 서양 선교사가 주도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번역자이자 중국어에 능통한 학자였다. 번역 과정에서 중국인 문인이나 학자도 함께 참여하였다. 서양 선교사와 중국 학자가 함께 번역 작업을 대표적인 예로 王韜가 <代表譯本>에 참여한 것과 王宣忱가 <和合本>번역에 참여한 것을 들 수 있다. 1919년 <화합본>출판을 계기로 이후 성경 번역 작업은 중국 문인과 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번역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성경 번역은 종교·정치·문학 등의 시스템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중국만의 특수한 문화와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중국의 통치이데올로기나 전통문화, 詩學의 규범, 發起人, 贊助人, 문인들의 독서습관 등이 번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향후 이러한 부분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

- 이환진(1989), <중국어성서번역사>, 《성서와 함께》 제17집1호.
 한미경(1998), 《초기 한국성서와 중국성서의 서지학적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賈立言(1934), 《漢文聖經翻譯小史》, 馮雪冰譯, 上海: 廣學會.
 賈保羅(1965), 《聖經漢譯論文集》, 香港: 香港基督教輔僑出版社.
 簡又文(1956), 《傳教偉人馬禮遜》, 香港: 基督教輔僑出版社.
 李志剛(1985), 《基督教早期在華傳教史》, 臺灣: 臺灣生物印書館.
 李志剛(1998), 《基督教在中國本色化》, 北京: 今日中國出版社.
 馬祖毅(2001), 《中國翻譯簡史》, 北京: 中國對外出版翻譯公司.
 湯清(1987), 《中國基督教百年史》, 香港: 道聲出版社.
 許牧世(1983), 《經典譯經》, 香港: 基督教文藝出版社.
 楊自儉(2000), 《英漢語比較與翻譯》, 上海: 上海外語出版社.
 趙維木(1993), 《論經溯源: 現代五代聖經翻譯史》, 香港: 中國神學研究院.

- 中文聖經新譯會 編(1987), 《中文聖經翻譯小史》, 香港: 中文聖經新譯會。
- 蔡錦圖(2011), <中文聖經翻譯的歷史回顧和研究>, 《聖經文學研究》第5期。
- 蔣驍華(2003), <聖經漢譯及其對漢語的影響>, 《外語教學與研究》第4期35卷。
- 李順春(2004), <聖經在中國的翻譯和傳播>, 《江蘇技術師範學院學報》第3期第10卷。
- 李熾昇, 李天剛(2000), <關於嚴復翻譯的馬可福音>, 《中華文史論叢》第64期。
- 劉四發(2011), <馬禮遜聖經漢譯文語言評析>, 《學理論》第17期。
- 劉俊(2008), <聖經翻譯史>, 《吉林省教育學院學報》第10期第24卷。
- 劉麗霞(2005), <官話和和合聖經的成功翻譯及其對中國新文學的影響>,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第3期。
- 任東升(2001), <聖經中文譯者對翻譯理論的探討>, 《外語與外語教學》第12期。
- _____(2002), <中國翻譯家與聖經翻譯>, 《四川外語學院學報》第4期。
- _____(2006), <聖經中文譯本考>, 《解放軍外國語學報》第1期第29卷。
- _____(2006), <聖經漢譯研究: 述評與展望>, 《上海翻譯》第3期。
- 譚樹林(2000), <聖經二馬譯本關係辨析>, 《世界宗教研究》第1期。
- _____(2000), <論馬禮遜聖經漢譯及其影響>, 《山東師大學報》第5期。
- _____(2003), <近代中文聖經翻譯史上的“二馬譯本”>, 《烟台師範學院學報》第4期第20卷。
- 謝世賢(2002), <從中國近代翻譯文學看多元系統理論的局限性>, 《四川外語學院》第4期第18卷。
- 朱樹颺(1998), <談聖經翻譯>, 《外語研究》第3期。
- 朱志瑜(2004), <類型與策略: 功能主義翻譯類型學>, 《中國翻譯》第5期第3卷。
- Austin Coates(1989), *Macao and the British 1637-1842*,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Broomhall Marshall(1977), *The Bible in China*, San Francisco: Reprinted by Chinese Meterail Center Inc.
- Barnstone, Willes(1993), *The Poetics of Translation: History, Theory, Practic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 Eugence Nida(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Strandenaes, Thor(1987),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As Expressed in Five Selecte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by the Mt. 5:1-12 and Col 1*. Sweden: Graphic System A. B.

<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diachronically analyze the literary style of Chinese Protestant bible translation. The paper reviews Chinese translated bibles in a periodical manner, from classical Chinese, simplified classical Chinese, written vernacular Chinese to modern Chinese. Among the versions, the Chinese Union version translated in vernacular Chinese is the most authoritative and widely accepted in China. In China, bibles were mainly translated by devoted missionaries from the mid-19C to 1920. They were scholars proficient in Chinese and translation. Since 1919, with the publishment of the Union version, the baton of bible translation work had been passed to Chinese scholars and writers. It is noticeable that the Chinese writers in this time considered bible as part of literature. Bible transl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religious and literal system of a country and China is not an exception. Thus further study on how the political ideology, traditional culture, poetic standards, promoters, sponsors and the reading habits of writers influenced translation field in China is to be continued.

Key Words: bible, translation, literary style, classical Chinese, vernacular Chines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8. 31.	2012. 11. 5.	2012. 11. 17.	2012. 11. 21.	2012. 11. 30.